

SECOND HOUSE



겨울 저녁, 주방의 어머니는 저녁 준비로 분주하다. 세라미어 나무 문이 실내의 온기를 전하는 듯 하다.

www.w1house.com



아이를 위해 만든 집이라서 거실의 중심에는 집주인 채은이(3세)의 작은 도서관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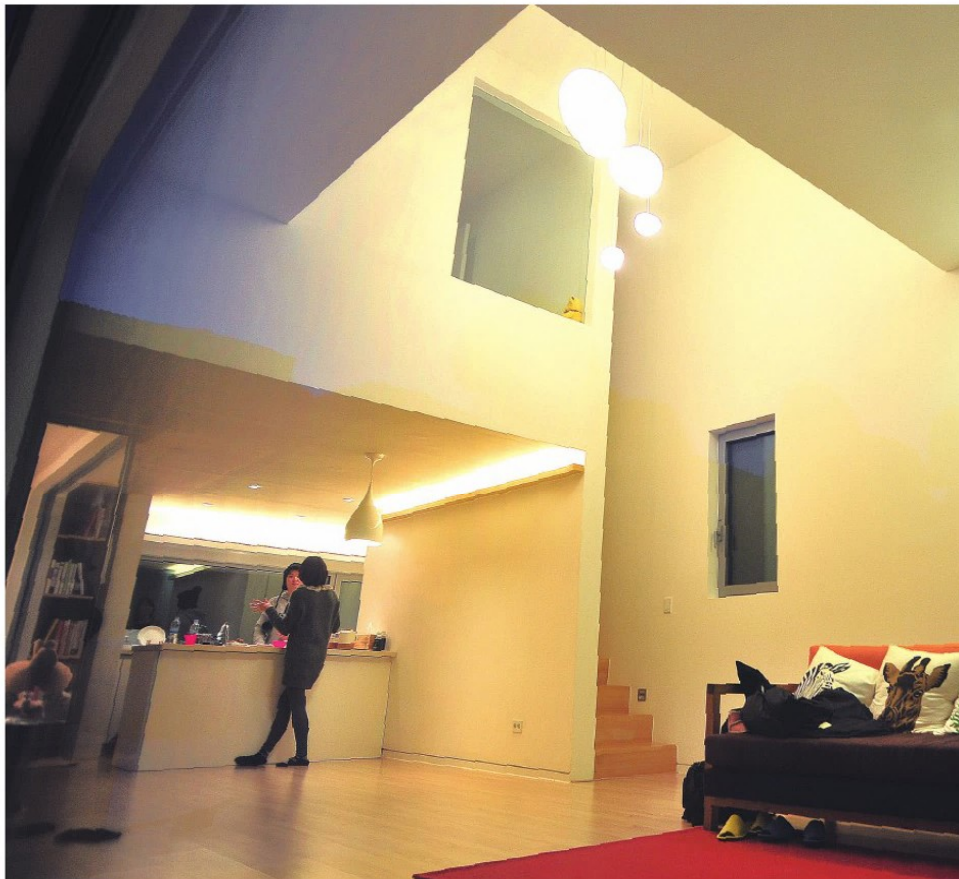
## 건축가 홍진희의 홍천 주택 풍경은 안에서 밖을 보는 것

나는, 12살에 처음 집을 지었다. 작은 지방 도시의 산중턱 무허가 땅에 연필로 대충 그린 아버지의 도면을 좇아, 형과 누나들은 진흙을 개고 찍어내어 먹줄을 따라 쌓아 올렸다. 가족 모두가 허리가 끊어질 무렵, 20일간의 공사는 끝났고 바로 입주했다. 아직 마르지 않은 흙냄새를 낚은 신문벽지가 틀어막았지만 가당찮았고, 구들장에서는 아궁이에서 뿜어내는 장작 연기가 술술 배어나왔다. 방 2칸 부엌 하나. 요즘 말로 100% 친환경 주택이었지만 막상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불편함 그 자체였다. 요즘 어느 건축가가 주창하는 '불편하게 살기'가 이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닐 거다. 삶의 가치를 담은 공간이기보다는 추위와 안전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집, 197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건축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글 사진 육상수 발행인

W1 HOUSE

• 월간 우드 플레닛은 이번 호부터 1억 5천만 원 미만의 목조주택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나무집'을 통해 모든 이가 행복한 집짓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아름다운 목조주택을 소개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02-722-4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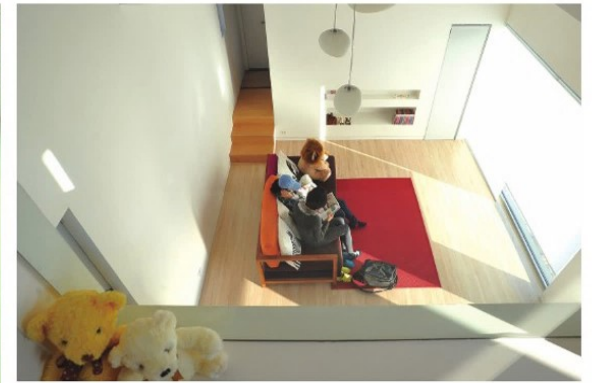


채은이는 3살에 집을 지었다. 서울 평창동의 넓은 빌라는 채은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어른의 시각에서 지은 이 집은 아빠의 배려로 멋진 인테리어를 했지만 정작 채은이는 머지 못하는 숨 막히는 공간일 뿐이다.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최대 골칫거리인 층간 소음은 국가가 방치한 제도에 국민들만 싸움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뛰는 아이를 지지하기 위해 부모는 365일 신경을 곤두세운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날아다니는 아이를 통제한다는 건 전쟁을 막는 일보다 어렵다. 채은이의 부모는 과감하게 결문을 냈다. '집을 짓자' 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막연했다. 건축주가 되려

는 모든 이들이 겪는 과정으로, 건축전담회를 인터넷을 뒤 뒤 뒤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믿을 수 있는 건축가와 시공회사를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고민 끝에 약속 든다고 영등포 시공사를 만나서 도장 찍고 기초를 치면 그 다음부터는 시공사가 주인이 되는 게 여전히 한국 주택건축의 현주소이다.

#### 좋은 건축가를 만나다라는 의미

채은이의 부모는 우연찮은 기회에 잡지에 소개된 '스무살 건축사무소' 홍진희 대표를 만났다. 홍대표가 강화도에 건축한



이 건축의 실내공간은 각 방의 창을 통해 시각이 연결된다. 아이를 배려한 디자인이 소통과 확인이 라는 공간을 낳았다. 하지만 고유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창 크기는 적게 줄였다.

목조주택을 신뢰할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의기 투합해 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집' 짓기였다. 누가? 아이가.

이미 집 지을 땅은 서울과 한 시간만 거리이고 청정수 계곡이 주위를 감싸는 홍천시 장전평리로 낙점해 두었다. 새롭게 신축한 주택 10채가 작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이곳에 112평을 평당 48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채은이네 가족의 '공간의 꿈'을 책임진 스무살 홍진희 대표는 '추억을 담은 집'으로 콘셉트를 정했다.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집은 사람에게 삶의 추억을 담은 공간이다. 3살 채은

이가 어떤 추억을 담을 지는 부모와 건축가의 준비에 따라 커지고 깊어질 것이다. 추억을 깊이 담아주기 위해 홍 소장은 내부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집중했다. 사이를 감싼 자연을 창 프레임의 변화를 통해 전제를 담기도, 잘라서 나눠 담기도 했다. 눈을 따라 마음이 가듯, 자연을 따라 추억이 쌓일 것이라 확신했다.

먼저 공사 기간의 효율성과 비용을 고려해 골격을 경량목조주택으로 선택했다. 복제품 같은 획일화된 목조주택이 아니라 현대적 디자인을 주도하는 목조주택으로 방향을 잡았다. 나무집의 장점은 단열과 공간디자인의 다양성에 있다. 지난



비밀의 공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좁은 복도는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2층을 연결하는 두 개의 계단은 아이에게 집이 우주임을 느끼게 할 것이다.



1. 2층 아이방, 벽상단에 좁고 긴 천으로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다.
2. 욕조는 처음부터 아이에게 미니 수영장이 되도록 설계했다.
3. 2층의 작은 거실은 주로 가족이 앉아서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원래는 테라스였으나 공간 활용을 위해 천정을 막아 다목적 공간이 되었다.

해 8월 초순, 허를 내밀어야 할 만큼의 무더위에도 목조주택의 다락방은 선선함을 유지했다. 아마도 콘크리트 구조였다면 가능했을까 싶다.

#### 평당으로 따지는 대한민국 건축비

아이주인인 이 집은 복도와 계단, 방이 어른에게는 협소하고 작다. 욕탕은 아이를 위한 놀이 기능이 기준이다. 보편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집의 용도와 기능을 배우지도, 집을 지어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익숙한 기준은 32평 아파트이다. 거실 1개, 방 3개. 사는 사람의 목적과 이유보다는 집의 목적에 우리가 맞춰 살았다. 그런 점에서 채은이네 집은 삶의 목적이 먼저 전제되고 그것에 맞춰 시은 집이다. 집을 짓는 이유가 분명하다.

집이 아이를 위한 공간이라면 집의 마감재는 어떤 것이 좋을 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가 정답이다. 하지만 건축에서 나무는 매우 값비싼 소재이다. 좋은 나무를 선택해야 하고 좋은 목수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집의 절반은 목수의 몫이다. 하지만 실력 있는 목수는 쉽게 만날 수 없다. 나무 디자이너도 없다.

디자이너는 값싼 나무를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기존의 목수가 짓는 것에 익숙하다면 나무 디자이너는 실용과 가치를 전한다. 아쉽게도 나무 디자이너는 없다. 그래서 고급 목재를 선택하는 것이지도 모른다.

집은 예산을 전제로 설계를 한다. 다 짓고 나뉘보니 한 평의 단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한 평 단가에 맞춰 집을 짓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건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집중 투입할 종목을 먼저 골라야 한다. 종합선물세트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적은 예산으로 그림 속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채은이네 집이 모두를 만족하는 건축이었다면 최소한 30%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었을 것이다.

#### 목조주택에 나무가 안 보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목조주택은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 마감이나 나무가 아니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내장에 나무를 붙이기도 한다. 삶에서 보이는 것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무의 수종마다 얼마만큼의 친환경적 기능을 가졌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인간의 탄생보다 먼저 자리한



건축주인 채은이를 2층 복도에서 만났다. 매주 금요일에 이곳으로 내려와 실컷 뛰고, 노래하며 지낸다. 네 번째 방문한 채은이가 일요일 저녁, 평창동의 본가로 돌아가는 일을 거부할 날이 많지 않은 거 같다.

숲과 나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성이 있다고 믿는다. 습도와 공기를 조절한다는 상식을 넘어 원칙적으로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는 절대성 같은 것 말이다.

채은이네 집은 기능성 공간 창출에 집중한 반면 감성을 전하는 나무는 많이 쓰이지 않았다. 추축하건데 아마도 건축비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내는 요즘의 트렌드인 친환경 페인트로 화사하게 마감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벽쪽에 잘라버려진 나무토막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세상 채은이에게 보여 줄 가치관이나 어지럽의 미학을 위해서, 혹시 조각가인 아빠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는 노파심이 되는 것이고. 이 집은 좁은 공간의 연속이 다시 공간을 이룬다. 미로를 통해 큰 공간을 만난다. 목조주택의 최대 장점인 박공지붕의 공간은 이 건축물에 없다. 간결한 박스형 디자인에 때문에 희생되었다. 건축가는 조금 후회하는 듯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이런 것이 균형이다. 다 얻으려면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집들을 많이 봤다.

### 다시 꿈꾸는 집

밤이 깊어지면서 채은이네와 동행한 가족들의 행복한 푸른 밤이 시작되었다. 흥취 장터에서 사온 양미리와 도루묵을 야외 장작불에서 굽는 것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와인 3병을 비웠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여자들의 행복한 수다가 창밖으로 전해왔다. 채은이는 자기만의 공간인 작은 도서관에서 동화 속의 주인공을 만나고 있다.

붙어 되면 목재는 조금씩 줄거나 늘어나고 남쪽을 향한 나무들은 색이 바랜다. 외부 페인트는 먼지가 채도를 떨어뜨린다. 채은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가감해야 할 일거리도 늘어난다. 오늘의 집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은 시간으로 여행하는 공간이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걷어내야 한다. 이 집의 진정한 가치는 먼 시간 뒤에 숨어 있다. 하지만 오늘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런 얘기는 사족이다.

어두워지면서 나도 집이 그리워졌다. 바로 말하자면 가족이 그리워졌다. 전형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그리워할 리는 없다. 빛이 멀어지면서 채은이의 집이 사라진다. 동시에 나도 집 짓는 꿈을 끈다. 누구를 위해서? ☹️



해가 지고 밤이 와야 진짜 시골 생활을 느낄 수 있다. 맑은 공기와 정적이 가득한 마당에서 이웃과의 대화가 무르익었다.

### 건축 개요

위치	강원도 홍천시 홍천군 정전평리 930-14
대지 면적	372㎡(112.5평)
건물 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64.61㎡(약 19.54평)
연면적	106.14㎡(약 32.10평)
건폐율	17.37%
용적률	28.53%
구조	강철목구조
계획 설계	스무술 건축사사무소
시공	스무술건축이여기
공사기간	2012년 10월 - 12월
준공	2012년 1월
평당건축비	485만원

### 마감 사양

구조재	SPF 목구조재
지붕재	지루프스톤 금속지붕
단열재	에코바트 + 100mm 스티로폼
외벽 마감재	AkroFlex, 세파이어 유질, 지루프스톤
창호재	공기시스템창호
내벽 마감	진흙질 노루표 수성페인트
바닥재	LG Z'in 강화마루
욕실 및 주방 타일	국산 및 수입타일 (윤형상재, 가이인터내셔널)
수전 등 욕실기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데리제사위키(두림위생도기)
주방가구	리엔
조명	예술조명
계단재	하이그라운드 무질(유림목재)
현관문	메타세라미어 목재계좌문 (유림목재)
방문	합판문 위 수성페인트 마감
불박이장	한샘 현장제작 후 하이그라운드마감
데크재	유림(유림목재)

건축가 홍진희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동학파(주거학)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2006년 건축사사무소 오픈, 현재 건축사사무소 스무술 소장으로서 일하고 있다. 작은 집, 소규모의 전문가를 위한 스튜디오공간, 1, 2인 가구를 위한 싱글즈하우스 및 코하우징 그리고 소규모 저층형 집합주택의 특화된 설계를 기반으로 컨설팅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에 관련한 One-Stop 업무를 한다.